평범한 일상을 신비하게 사는 법

(여호수아 3:1~17)

1.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5.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평범한 일상을 신비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신비하게 사는 법'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신비하다'라는 말의 뜻을 새겨보자면 일이나 현상 따위가 보통 사람들의 힘이나 지혜,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신기하고 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씩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신비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공유할 정도로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 상식과 이론의 능력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제 경우에는 일 년 동안 프린스턴에 가 있을 때에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정도 먼저 가서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지하실에 안 쓰는 골프채가 나뒹굴고 있어서, 3개를 받아와서 운동 삼아 골프연습이나 해볼까 해서 연습장에 가봤습니다. 참 지독하게도 안 돼서 조그만 책을 하나 사서 폼을 연구해봤는데 어느 날은 깡깡 소리가 나면서 공이 쭉쭉 뻗어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이 나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팔목 굵기의 피복된 전선이 차 앞으로 떨어지기에 브레이크를 확 밟고 내려서보니 차 바디에 그 굵은 전선이 부딪힌 자국이 났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전깃줄이 보이질 않습니다. 갑자기 겁이 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프

린스턴에서 일 년 동안 기도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운동겸 하는 골프연습 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다 그만뒀는데 저 혼자만의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지 500년이 지나 600년 가까이 되었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70여년 만이고, 오늘 드디어 출애굽한지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가게 되는데 참 뜻 깊은 순간입니다. 이렇게 복지로 들어가는데 길을 따라 환영받으며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건너듯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진입해 들어갑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단강이 30m 폭이 되는데, 보통 때에는 물이 다 채우질 못해서 가운데 부분만 흐르다가, 이 시기에는 헬몬 산의 눈이 녹고 세 개의 지류의 물이 불어서 요단강 물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늦은 비까지 내리면서 한 5m 되는 자연제방을 넘어 범람을 하게 되는데 수심이 4~5m가 넘습니다. 하필 이럴 때를 골라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게 되는데 참 이상하죠? 출애굽에서 복지를 향하는 첫 번째 걸음을 뗄 때에는 홍해를 건넜고, 이제 복지를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사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연으로 보기에는 홍해를 건너서 복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 또 복지를 향한 여정의 끝에 복지로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며 복지의 입구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복지가 어떤 땅이고 그곳에서 살게 될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격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버랜드에 가면 '에버랜드에 잘 오셨습니다. 꿈과 환상과 기쁨이 있는 에버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단강 물이 상류 쪽으로는 멈춰서 벽을 만드는 현상과 홍해 때 양쪽으로 물 벽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뜻하는 바는 '신비로 가득찬 복지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뜻인데 단순하게 한 번의 역사적 기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단강이 벽처럼 쌓이는 이 신비함이 바로 가나안땅 전체의 삶을 성격 짓고 있는데 '이제부터 당신들은 신비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지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신비로 가득 채워진 삶인데, 이 신비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이나 자연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즉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상식이나 자연법칙,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원칙의 한계 안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임의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미 만들어진 인간 사회의 풍습이나 관습에 매여 살지 않고, 물 같은 자연에 임하는 자연법칙에 매여 살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매여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잡아매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끝없는 신비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우리의 삶을 신비로 채워 가시는데, 오늘 이 요단강의

도하 사건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시며 복지의 삶 전체를 성격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복지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부터가 신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전의 요단강 물은 전혀 다른 물이 됩니다. 모든 생물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조건인 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법칙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액체입니다. 벽돌을 쌓듯이 쌓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물주로서 물을 지으시고 부여하신 속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면서 선민과 함께 하실 때에, 내 앞에 있는 물은 더 이상 이전의 물이 아닙니다. 물은 지금 여기서 선민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셔서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혀 다른 성질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상류에는 쌓이고 하류에는 한 방울도 흐르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250만 이스라엘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위를 건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의 빠지는 성질을 제거하셔서 물을 딛고 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물의 흐름이 마치 기류의 흐름처럼 공중으로 올라가서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선민들이 그 아치 밑으로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조물주와 창조주로서 정해 놓으신 자연법칙으로 만드신 물이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앞에서는 더 이상 자연법칙상의 원칙을 따르는 물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신비의 세계는 복지로 들어가기 전인 출애굽과 광야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이 신비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곳이 복지임을 말씀해주십니다.

물론 우리 선민들의 삶에서 별다른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내 주변의 피조물들은 미리 정하신 자연법칙 그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조물주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로서 관계하실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자연법칙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선민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해는 어제도 오늘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아버지가 자녀인 선민들을 고려해서 날마다 그렇게 선택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이 보이고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냥 정해놓으신 그대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도록 새롭게 선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자연법칙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물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을 보아왔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살아갈 때에는 절대적인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됩

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태양 아래에서 살 것을 보시면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도록 날마다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시기 나름인데 서쪽에서 떴다가 동쪽으로 질 수도 있고, 남쪽에서 떴다가 북쪽으로 질 수도 있고 남쪽에서 떴다가 중간쯤에서 다시 남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나름이지 절대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동쪽에서 뜨는 해를 보고 서쪽으로 지는 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법칙이라고 하지만 선민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봐도 맞습니다.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태양이 멈추는 일도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정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길,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풍습,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원칙도 인간끼리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그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의 모든 원칙은 진흙덩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물러서 만드시기 나름이고 그 원칙을 이용하시기 나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은 애굽의 인간 사회가 만들어놓은 원칙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간세상의 주인이시고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만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이어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데 신비한 일입니다.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야만 하느냐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신비의 세계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속에서 금년 말까지 거래를 성사시켜서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세계로 이끄실까요? 우리 아들과 딸이 일류대학을 들어가서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병에서 나았으면 좋겠다는 선민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소원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비가 가득 찬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5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하십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에 시선을 주목해서 한 이천 규빗(1km)쯤 거리를 두고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내일 출발하기에 앞서 오늘 밤에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시다면 물을 벽돌처럼 쌓게 하

실 수도 있는, 신비함으로 가득 찬 삶으로 들어가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성결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러야하는 상황에서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불결이 가장 합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렸는데 깨끗함의 문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결 따위는 안중에 두지 말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씻지 못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터로 가는 사람들에게 성결, 즉 깨끗하고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전쟁터로 가는 선민에게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적들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눈으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km 앞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법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법궤를 250만 명이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보되, 온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법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형식적 성결예식을 거행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출발하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눈을 뜨면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법궤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서자마자 강물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온 지구 표면상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법궤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유일한 증거에 250만 명이 시선을 집중합니다. 어떤 적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할까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이 굶었는지 따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불결도 용납되는 것과는 반대로 죽느냐 사느냐를 위해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인 법궤에 500만개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그 법궤가 증거로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는 성결을 위생상의 깨끗함, 종교적 형식상의 의식, 도덕적 고결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하지만 성결의 우선적인 의미는 인격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 '관계가 성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마음을 불러 모으는 것이고, 마음을 불러 모아서 법궤로 시선을 돌리고 그 눈길을 따라서 우리 마음 전체를 법궤가 가리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럴 때에 도덕적 고결함도 나올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에 종교적의식의 의미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결하게 하는 법궤 대신에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법궤의 의미가 완성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승천하신 길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서 마음이 머무는 것이 성결인데 이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벧전1: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풀 같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 육체가 풀 같이 보일 때까지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한 순간 말라버리는 풀 같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고, 육체를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쌓일 수 있다고 믿어지고, 애지중지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내 육체에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한창 유행했었는데,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주이시자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것은 바로 선민의 마음입니다. 말씀 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지구 전체보다 귀중한 것은 나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구 전체 같은 크기의 별이 백 개가 더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말씀 한 마디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렁이 같이 보잘 것 없는 나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의 나의 마음이 지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귀중하게 보이고 풀 같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야고보 장로는 약4: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했는데 내 목숨이 안개처럼 느껴지질 않는 것은, 나의 이 세상의 삶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불어넣고 귀중한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빼버리면 인생이 안개처럼 여겨지고, 한 순간 말라버릴 풀처럼 여겨지고, 내가 장관이든 뭐든 그것들이 한 순간 떨어질 꽃봉오리처럼 느껴질 순간이 오게 되면 이제부터의 삶의 모든 순간이 신비로 가득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가 물에 손을 대면 물의 속성을 느낄 수 있는데, 손대면 차갑고 발을 디디면 가라앉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체감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러한 물에 대해서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동해바다를 걸을 수 있고 한강을 걸을 수 있습니다. 무슨 공상 만화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에 대해 체감하는 마음까지도 죽어버려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께 다 드리면 물은 영상에 비춰진 은막 위의 바다가 됩니다. 영상에 비춰진 바다를 보면서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이 그런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물 위로 걸어가라고 하시면 걸어가고,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면 배를 타고, 물 밑으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고 이런 느낌이 뭔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매사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과 사건과 사물과 일에 대해 죽는 십자가 생활화라는 단 하나의 행동을 반복하면서 내 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원하고 살 뿐인데, 상상도 못할 신비의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인간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칙이 흐물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이지,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가면 빠져 죽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쇠보다 더 단단한 성질을 지니면서도 찰랑거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믿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지랑이 같이 느껴지고, 이 세상의 사실은 지독한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 하나님이 지독한 현실로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안개처럼, 한 순간 말라버리는 풀이나 풀에서 떨어지는 꽃봉오리처럼, 단순한 은막 위의 영상처럼 느껴지는 전환(전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비의 삶이 주어집니다.
가장 신비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은 빨려들어 가는 깊이가 무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세상이 만든 자연법칙도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드시며 우리의 삶을 신비로 가득 채우실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신비의 세계로 초청해 주셨으니 신비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